

#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소식 (2020 년 3/4 분기)

2020 년 8 월 5 일

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, 크리스천으로서의 책무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'함께 하는 선교 즉 협력 선교'를 실천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'함께 하는 선교'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

이 협력 선교를 위해 모든 선교동역자 여러분과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에 속한 전국교회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.

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## 1.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 장학생 후원 사역입니다.

이 사역이 시작(2013 년 9 월)된 지 벌써 8 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총회장학위원회(CODEBEIED)를 중심으로 사역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제 100 주년을 앞둔 총회 산하 전국교회는 각 교회에 속한 장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후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2020 년~2021 년에 장학금을 학생들(초, 중, 고, 대학생)은 지난 7 월에 있었던 평가회를 통과한 기존의 학생들과 새로 선발된 17 명의 장학생을 포함해서 총 62 명입니다.

이번 학기의 장학생 감사편지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장학생인 엘리에세르(Eliezer)의 어머니가 직접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드리는 감사편지입니다. 감사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번역해서 함께 보내드립니다(원본은 첨부되는 감사편지 PDF 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).

**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...**

**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제 아들인 Eliezer A. Encarnacion 을 특별히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신 것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은 지금까지**

제 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. 특별히 이 장학금은 무엇보다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교통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
지금은 전 세계가 Covid-19 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모든 장학생의 학업 증진을 위해 한결같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. 이것은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; 저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힘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.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후원해 주셔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.

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.

Karina Hilton 드림  
장학생 Eliezer A. Encarnacion 의 어머니

## 2.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주일학교 교재 출판 사역입니다.

전국교회가 총회주일학교 교재를 사용하면서 이 사역이 잘 정착됨으로써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. 지난 주까지 5 권의 집필 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. 1-4 권처럼, 각 집필위원이 주제에 맞춰 교사용을 먼저 집필한 후에, 집필된 교사용을 중심으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각 단계별로 청장년용, 중고등부용, 어린이용, 유치부용을 집필하였습니다. 이제 제가 총 감수를 마치면 편집 디자인 과정을 거쳐 5 권 시리즈가 주안장로교회(주승중 위임목사님) 후원으로 출판됩니다.

교재 집필위원회에서는 집필위원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에 늘 정기적으로 기도회와 계속 교육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.

코로나 19(Covid-19)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. 전체 인구 약 1,000 만 명 대비 확진자 수(확진자 73,117 명, 사망자 1,183 명, 회복 34,293 명,

2020 년 8 월 4 일 기준)가 발표되었습니다. 사망 비율이 높고, 매일 확진자 수가 800 명-1,800 명 사이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난 103 회 총회 때, 한국을 방문한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장이신 싸이리 마르떼(Sairy Marte) 목사님도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에 계십니다.

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이 선교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, 사역 위에 늘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.

장은경 선교사 드림